

“장흥 풍력발전소 환경훼손·소음 우려 크다”

영산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장흥군 허가 여부 원점 재검토

주민대책위 건설 반대 집회

장흥 풍력발전소 사업 환경파괴 우려로 난관에 봉착

한국서부발전(주)이 추진하는 장흥 풍력발전소 사업이 ‘생태계 및 지형훼손이 우려된다’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옴에 따라 난관에 봉착했다.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산 4번지의 3필지 일원 8만2229㎡에 16.1MW(2.3MW×7기) 풍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영산강환경영역청으로부터 ‘호남정맥이 인접하고 있고 식생보전3등급(갈참나무·굴참나무)의 85% 이상을 포함하고 있고 사업시행시 생태계 및 지형훼손이 불가피해 발전소 가동 때 소음(저주파) 및 경관 등의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는 최종 의견이 제시됐다.

또 사업부지 하루 1km에 상수원보호구



유치면 6개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가 지난 30일 한국서부발전 장흥 사무소 앞에서 풍력발전소 사업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역이 위치해 공사 및 운영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영향이 미천다며 철저한 저감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사업부지가 57%에 이르는 급경사 지역으로 사면붕괴와 토양침식, 해굴 등이 우려돼 사면안정과 대책 또한 필요하

다고 영산강 환경유역청은 밝혔다. 그동안 관망자세를 취해오던 장흥군 당국은 영산강환경영역청의 환경영향평가(2차보완)가 나온 이후 주민들의 ‘풍력발전건설반대 대책위’ 입장을 들어가며 원점에서 풍력발전허가 문제를 다각적으로 강

구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주) 김우영 장흥사무소장은 “이미 지난 2012년 4월에 에너지기술연구원 사업타당성조사를 환경부에 제출할 때 ‘조건부 동의’ 절차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타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최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희 장흥군 민원열린과장은 “지난 2010년 11월 한국서부발전(주)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장흥풍력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은 사업기관과의 의례적인 절차일 뿐 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며 행정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22일부터 부산면(4개 마을), 유치면(6개마을), 장평면(5개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위원장 김선홍)은 장흥군청과 장흥서부발전 사무소 앞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풍력발전 건설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다문화센터 결혼이주여성 정리수납 과정 수료식

영암군은 지난 30일 영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정리수납전문가 과정 수료식(사진)을 개최했다.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된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생 12명이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수납전문가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업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했다.

결혼이주여성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교육은 주2회 3시간씩 총18시간 이론과 실

습을 병행해 이뤄졌으며 수강생에게는 출석률 10%와 필기시험 60%, 실기30%를 반영해 자격증이 주어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정리정돈을 집에서 실습을 하면서 집안의 변화되는 모습에 가족들 모두가 좋아했다”며 “2급에 이어 1급 자격증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자격증 취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으로 연계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장흥군 표고재배 농가

선진 기술 보급 교육

장흥군이 표고버섯 재배 선진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목재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장흥표고버섯생산자협의회 주관으로 표고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고생산농가와 귀농·귀촌농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기술교육은 전문가를 초청해 이상기후에 따른 재배 대처방법과 선진 기술동향 및 품질인증 관리제도, 농약 PLS 시행에 따른 안전성 관리방안 등 지역 표고산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지역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구축과 재배농가 소득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는 장흥표고버섯생산자협회는 이번 교육과 함께 원산지 표시단속과 표고재배 기술보급, 선진지 견학 등의 활동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 대표 브랜드인 장흥표고버섯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표고산업 활성화와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 농식품 업체·농가 145명 참여 남도드림생협 출범

장흥군 농식품 가공업체와 생산농가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남도드림생협(이사장 김양진)이 최근 출범행사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남도드림생협은 장흥군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 63개소와 생산농가 82곳 등 145명의 회원이 참여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생산자 중심의 법인으로 다양한 공급자 플랫폼을 구축해 농수축산식품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간소화 하고 소비자의 수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동조합은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과 공동판매 및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품목구성과 가격경쟁력 확보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열린 출범식에서는 자연사랑협동조합과 스마트 팜 FPC 등 서울시 소재 2개의 소비자 협동조합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장흥군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 63개소와 생산농가 82곳 등 14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남도드림생협이 최근 출범행사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장흥군 제공>

업무협약에서는 장흥에서 생산한 고품질 친환경 먹거리를 대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양진 이사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하

다”며 “조합원 상호간의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공동 브랜드화하고 마케팅 시스템을 일원화해 수도권과 해외 수출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잔결음

강진군이 조직개편과 함께 민선 7기 군정목표를 확정하는 등 이승우 군수의 공약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7대 분야 40개 사업 공약을 최종 확정해 홈페이지에 싣고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

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인구유입, 농림축수산업 고부가가치육성, 지역 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산업육성, 주요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유도 등 7대 분야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진산단 투자유치로 임기 내 분양완료, 농수산물 가공·유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단위 스마트팜 유치, 강진의 몽마르뜨 언덕 조성, 전국 최대 규모 루지 테마파크 조성 등이다.

특히 공약사항 중 강진산단을 임기 내 분양 완료해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인구유입 시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진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강진농기센터 자체 개발 딸기육묘판 재배 평가회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해 보급한 딸기육묘판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열어 재배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30일 강진읍 한 농가의 육묘장에서 가진 현장 토론회에서 공급된 육묘판으로 재배 중인 20농가의 딸기모종 평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진군의 딸기 육묘판은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지원을 받아 지난 2015년 개발됐는데 딸기모종이 튼튼하고 충실한데다 작업효율도 뛰어나 시들음병과

탄저병 발생률을 억제시켜 우량묘 생산

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최영준 원예연구팀장은 “질 좋은 모종확보가 딸기농사의 전부”라며 “2020년까지 ‘1시간 1작목 육성사업’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0억원을 육묘목화단지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군농기센터는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딸기 육묘판의 2015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공급 3년째를 맞아 타 지역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능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 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